

# '신경숙 표절 사태' 일파만파

## 학술단체 고발...작가회의 '문화권력' 토론회 열기로

작가 신경숙(사진)의 표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추세다. 문학계에 속하지 않는 학술단체의 검찰 고발에 이어 문단 내부의 문화권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전개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학인들의 윤리식 제고, 문학·출판 생태계의 복원, '문화권력'의 작동 양상에 대한 공론의 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신 작가의 표절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은 지난 16일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신 작가는 17일 짧은 해명을 통해 "우국을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여기에 '전설'이 포함된 소설집 출간사인 '창작과 비평'(장비)도 "표절 운운은 문제가 있다"고 가세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작가와 출판사의 해명에도 표절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절의 유사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사려 깊지 못한 대응은 문학계 반발뿐 아니라 여론의 뭇매로 되돌아왔다. 특히 그동안 문학계 내부에서는 신 작가를 둘러싼 표절 의혹이 심심치 않게 일었다.

정작 이번 신 작가의 표절 논쟁의 점화는 문학계 외부에서 촉발됐다. 한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지난 18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 연구원장은 고발장에서 신씨가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두 차례 내면서 출판사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인쇄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



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 작가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와 달리 문학계는 "문학의 문제는 문학계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최근의 표절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재'라는 주제로 오는 23일 서울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작가회의 측은 "신경숙 작가 스스로가 나서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며 사과해 주기를 기다렸으나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대응 움직임이 없다"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문학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장비 강일우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혐의는 충분히 제기할 법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고 언제나 공론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학평론가인 권성우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 1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일 있는 학술대회나 중립적이고 신랄한 판정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의 제안대로 이번 논란은 작가회의 토론회 등 문학계 내부의 자정 작용으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hide'

### 주안갤러리 7월 3일까지 김용안전

아름다운 풍경이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안개에 둘러싸인 숲은 마치 무릉도원과도 같다. 꿈에서나 만났을 법한 몽환적인 풍경이다.

주안갤러리는 오는 7월3일까지 김용안 작가를 초대해 '현실과 이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김 작가의 작품은 현실과 이상 그 경계에 선 현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안개 덮

힌 환상적인 풍경처럼 구체적인 윤곽이나 뚜렷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서다. 작가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역설을 풍경과 세 그림을 통해 이야기한다. 그의 작품 속 안개는 무한한 권력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들도 틀에 묶여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문의 062-223-505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1800년대부터... 희귀 카메라 다 모였네

동명동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 오픈  
사진기·영상 장비 등 1600여점  
입소문 타고 방문객 줄이어  
토요일마다 영사기 영화 상영  
이수환 관장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한 때 우리는 화면에 비가 내리는 영화를 보곤 했다. 낡은 영사기와 필름에서 만들어진 흐릿한 영상에도 눈물을 흘리고, 환하게 미소를 짓곤 했다. 학교 운동장에 자리 잡은 천막극장이나 광주 도심의 영화관에 들어서면, 영사기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화면에 닿아 마술처럼 영상이 그려지는 모습에 환호성을 보내곤 했다. 이따금 뒷좌석의 말쑥꾸러기들이 손을 높이 들어 영사기 빛을 가리면, 손 그림자가 화면에 그려지는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비록 낡았지만 우리의 감성을 자극했던 잊지 못할 풍경들이다.

카메라에 담긴 아날로그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멋진 공간이 광주에 들어왔다. 최근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1980년대 영등기 등 희귀 카메라와 영화 장비를 전시하는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관장 이수환)이 문을 열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인근에 제희갤러리 등이 오픈하면서 동명동은 새로운 광주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옛날 카메라를 전시하는 이색 공간이 더해졌다.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은 '카메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장품이 다양하다. 미국에서 1880년대 만들어진 'Monroe NO1' 등 1600여점의 사진기와 영상 장비들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1882년에 만들어진 환등기('Antiquipe bumer lantern slide projector')는 호롱불을 안에 넣어 렌즈에 눈을 대고 확대된 영상을 보는 시스템이다.

3D 카메라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입체 사진기와 복사기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인 1960년대 나온 'Polaroid print copier'라는 복사 전용 카메라 등도 눈길을 끈다. 1930년대 특별주문을 통해 금도금으로 생산된 'Leica if gold plating'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희귀작으로 꼽히는 카메라



21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에서 이수환 관장이 전시 중인 카메라를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 이 카메라는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것 중 하나다.

30여평 남짓한 전시 공간 탓에 250여점만을 전시하고 있지만 입소문을 타고 지역 사진동호회와 사진학과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최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현장체험도 늘고 있어 박물관 측은 따로 영사기를 이용한 영화상영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전시 작품의 95% 이상은 현재에도 작동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을 돌며 이들 카메라를 사들이고 관리해온 이수환(53) 관장 덕분이다.

이 관장은 "집 안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족들간 약속인데 카메라를 사 모을 때 아내에게는 '800점만 샀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들들났다"고 소개했다.

광주 예술의거리에서 액자 제작·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관장은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

해 하나 둘 사 모으다 본격적으로 사진과 영화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청계천을 뒤지고 해외에 있는 지인을 통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보존돼 있던 희귀 카메라를 수조했다. 이렇게 소장하게 된 작품만 1600여점에 달한다.

그는 "10여 년 전에 '광주는 먹을 것은 많은 데 볼 것은 없다'는 서울의 한 지인의 말에 오기가 생겨 카메라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박물관에서 토요일마다 옛 영사기로 직접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또 조만간 2층으로 확장해 더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결집할 계획이다. 이 관장은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박물관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62-225-996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